

‘사바하’, ‘극한직업’ · ‘증인’ 모두 넘었다



극장가 신흥 강자 등극...개봉 첫날 18만 동원

영화 '사바하'가 극장가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2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시장 집계 따르면 '사바하'는 개봉 첫 날인 20일 18만3934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사바하'는 신홍 종교 집단을 쫓던 박복사(이정재 분)가 의문의 인물과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시작되는 미스터리 스릴러이다. 강렬한 서스펜스와 탄탄한 전개 그리고 세밀한 실력과 배우들의 폭발적인

연기 시너지로 개봉과 동시에 뜨거운 호평을 불러 일으키면서 개봉 첫 날부터 정상에 올랐다.

'사바하'의 오프닝 스크어는 장재현 감독의 전작으로 544만 관객을 동원했던 '검은 사제들'의 19만1090명과 비슷한 성적이다. '검은 사제들'이 수많은 패러디물이 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던 것에 이어 '사바하'도 극장가에 미스터리 스릴러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극장가는 '극한직업' 전하였

다. 영화 '명량'에 이어 역대 관객 동원수 2위에 이름을 올린 '극한직업'은 경쟁자 없는 무한 질주로 거침 없는 흥행 물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사바하'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돼 "새 판이 짜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신홍 종교라는 신선한 소재로 지 금껏 분석 없는 강렬한 미스터리 스릴러를 선사하는 '사바하'는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긴장감과 독창적인 미장면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변신으로 뜨거운 반응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예매율 1위 자리도 지키고 있어 개봉 첫 주말 흥행 성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쇼! 오디오자키’, 3월17일 첫방송



드러냈다. 특히 이날 '그대 곁에 성시경입니다' 코너를 진행한 성시경은 7년만의 라디오 복귀로 오랜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연예전문가 포스로 시청자와 연애상담을 진행한 성시경은 합계 코너를 진행한 특별 게스트와 실전을 벌이며 분노하는 모습으로 청취자들의 웃음을 유발했다.

'쇼! 오디오자키'의 첫 오디오 LIVE가 많은 청취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tVN '쇼! 오디오자키'는 스타 오디오 자키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컨텐츠를 보이는 오디오 형식에 담아낸 예능 프로그램.

전국을 돌아 다니는 이동식 오픈 스튜디오에서 공개 라이브 오디오 방송이 진행되고 각종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다. 이후 이들의 콘텐츠의 자세한 준비과정과 진행상황은 TV를 통해 지켜볼 수 있다.

지난 17일에는 오전 7시부터 각종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tVN '쇼! 오디오자키'의 첫 '오디오 LIVE' 방송에서는 봄, 소유진, 성시경, 박명수, 몬스타엑스의 원호, 기현, 민혁, 주현이 오디오자키로 나서 본인들이 직접 준비한 콘텐츠로 수많은 청취자들을 사로잡았다.

소리만 들을 수 있었기에 실제 부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음 달 17일(일)에 공개되는 첫 방송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청취자들 역시 "오디오만으로도 재미있다", "본 방송을 봐야만 할 것 같은 오디오 티저 라이브"라는 호평으로 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첫 단독 라디오 진행으로 팬들의 호응을 얻은 몬스타엑스 역시 팬들과 함께 온몸으로 펼치는 퀴즈대결로 부스 안을 달아오르게 했다는 후문.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라편격기' 원호의 기상천외한 라편 레시피의 정체 역시 본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20일 공개된 tVN '쇼! 오디오자키'의 티저 영상도 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오디오 자키로 나선 스타들의 모습이 잠시나마 담긴 것. 각각의 매력이 한껏 담긴 콘텐츠를 선보일 이들의 오디오 부스 속 모습에 기대감이 쏠린다.

tVN '쇼! 오디오자키'는 오는 3월 17일 오후 6시 10분에 첫 방송되며, 지난 주 진행된 첫 오디오 LIVE는 팟방을 통해 청취 가능하다.



‘전곡 차트인+10개국 1위’ 윤지성, 워너원 첫 솔로 성공 출발



가수 윤지성이 워너원 출신 첫 솔로로 의미있는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

윤지성은 지난 20일 첫 솔로앨범

'Aside'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달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콘서트 이후 각자 도생에 나선 워너원 멤버들 중 윤지성이 가장 먼저 솔로 앨범을 내놓고 활동에 돌입했다.

워너원은 데뷔 직후 엑소, 방탄소년단 등 국내 톱 보이그룹들에 맞먹는 파괴력을 입증했다. 음원과 음반

모두 괴물같은 영향력을 과시한 것은 물론 데뷔곡 '에너지'이 음악 방송 17관왕을 차지했고 데뷔 쇼케이스와 첫 콘서트, 파이널 콘서트를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하며 진기록을 세웠다. 신인상 싸움이라든가, 대상 등 주요 부문 상도 휩쓸었다.

눈부신 성과를 거뒀던 워너원에게 이후의 행보도 상당한 관심이 받고 있는 상황. 만형 윤지성은 솔로와 뮤지컬로 2박을 열었다.

윤지성의 'Aside'는 신뜻하게 출발했다. 아이튠즈 10개국 종합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다. K팝 앨범 차트에서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

본 1위를 비롯해,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등 7개국 톱10에 등극했다.

또 내이버 뮤직 1위를 비롯해 멜론 등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타이틀곡 'In the Rain'을 비롯해 수록곡 전곡이 차트인에 성공하며 솔로로서 가능성도 확실히 입증했다.

또 그가 처음으로 주연을 맡아 무대에 서게 된 뮤지컬 '그날들'은 티켓이 매진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월 열리는 그의 첫 팬미팅도 매진이 줄을 잇는 등 막강한 티켓 파워도 과시하고 있는 것.

첫 솔로로 의미있는 성과를 보여준 윤지성이 그가 바라는 따뜻한 품요로운 '발걸음'을 걸게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대탈출2’, 지난 시즌 멤버 그대로 간다

케이블채널 tvN '대탈출'이 두 배 더 강력해진 재미로 시청자들을 찾는다.

'대탈출'은 오는 3월 17일 밤 10시40분 첫 방송을 확정 짓고 지난 시즌 멤버 그대로, 강호동, 김

종민, 신동, 김동현, 유병재, 피오6명의 멤버가 다시 한 번 의기투합, 더욱 업그레이드 된 재미와 재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대탈출'은 강호동부터 초반에는 전혀 감

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없는 예능 장르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방송을 거듭해 나갈수록 강호동을 비롯한 멤버들의 의기투합과 탁월한 감각이 빛을 발휘하면서 밀실 탈출의 쾌감을 안기기도 했다.

최근 첫 촬영을 마친 멤버들은

더욱 치밀해진 제작진의 밀실 설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정준연PD는 "제작진의 노하우도 출연진들의 문제해결 능력도 모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오는 3월 17일 밤 10시 40분 첫 방송

‘어쩌다,결혼’ 99% 공감 2030 현실 결혼관



최근 20대·30대 미혼남녀 3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결혼 압박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70% 이상 결혼 압박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 중 압박을 가하는 사람

으로 59.1%가 부모님을 꼽았다.

'어쩌다, 결혼' 역시 미혼남녀들의 현실 고민을 담고 있다. 이야기는 결혼에 대한 남녀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된다. 항공사 오너 2세 성석(김동욱 분)과 전직 육상요정 혜주(고성희 분)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나간 맞선 자리에서 만난다.

성석은 한 카페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혜주를 기다린다. 혜주는 지리도 모르던 혜주에게 딱 30분이 있다고 외친다. 두 사람은 각자 30분 동안 의자에 기대 잠을 자거나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 약속된 30분이 지나자 두 사람은 헤어진다.

혜주와 성석의 인연은 여기서 끝인 줄 알았다. 밥집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결혼에 대한 각각의 사정을 털어놓는다. 성

석은 혜주에게 자신과 계약 결혼을 제안한다. 혜주는 고민 후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성석은 아버지(최일화 분)의 유산을 상속받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 계약 결혼을 선택했다. 혜주는 연미와 세 오빠의 결혼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3년 간 결혼하는 척 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

계약 결혼임에도 재산분할각서 작성, 상견례 등 많은 일이 성석과 혜주를 기다리고 있다. 또 결혼식장 예약, 청첩장 제작, 혼인신고 등 결혼 전 여러가지 절차가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이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지나자 두 사람은 헤어진다.

'어쩌다, 결혼'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지만 해피엔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현실적이다. 전통적인 결혼관이 아닌 현재 2030의 시

선으로 달라진 결혼 가치관에 대해 솔직하게 그렸다. 과거에는 결혼을 안정적인 삶과 당위로 생각했다면, 영화 속에서는 결혼보다는 개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대사는 집중하는 것을 추천한다. 박호찬, 박수진 두 남녀 감독이 함께 시나리오를 썼고, 성석과 혜주의 대사는 두 감독이 직접 주고 받아 써내려간 현실적인 대사이기 때문이다. 여는 연인 관계에서 있을 법한 대사가 속속 등장한다.

물론 성석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계약 결혼을 선택한 설정과 결혼 전 재산분할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 미혼남녀들의 공감을 자아 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재산분할 각서 작성을 제외하면 주위로부터 결혼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 미혼남녀들과 똑같다. 현 2030이 가진 결혼 가치관에 대해 충분한 공감을 느낄 수 있다. 2월 27일 개봉.

오늘의 운세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음력 1월 18일)



▶**경조** 자녀에 대해 걱정거리가 있을 때, 부모 의견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할 수 없어 답답. 기, 오, 자 성씨는 그들에게 말하고 신경 쓰지 말라. 신병수도 있으니 건강 유지할 것. 의료, 가이드, 자영업자는 변동수 있으니 10월 안에 해결할 것.



▶**사계** 직장에는 이상 없으나 애정으로는 갈등에 시달릴 때다. 토끼, 뱀, 양, 닭씨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더욱 힘겹다. 나, 오, 자, 흥 성씨는 직업이나 주제를 변동해서는 안 된다. 1, 4, 7월생 아직은 움직일 수 없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유정** 신용을 담보로 삼고 살라라. 기, 마, 비, 자 성씨는 일을 맡은 바에는 더욱 믿고 나갈 것. 이것저것 욕망하다가 다 놓쳐 버리는 격. 죽은 자식 잡고 울고만 있지 말고 새로이 도전할 것. 4, 6, 9월생은 자신감이 이겨 나가는 길이다.



▶**지해** 혼자 능력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는 법. 기, 나, 오, 자 성씨의 도움 없이는 현재 상황을 헤쳐 나가기 힘들 때다. 자신을 멀리한다고 상대만 탓하기 보다는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단점을 찾아 고쳐 복이 좋겠다. 모든 것 내 탓으로 돌릴 것.



▶**용띠** 3, 8, 10월생은 친구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 소신껏 처리하라. 미혼자는 동, 북간에서 인연을 만날 수 있고 기혼자는 직업이나 이사를 할 수 있다. 기, 바, 사, 오 성씨 무엇 이든 적게 시작하고 계획대로 진행함이 좋겠다.



▶**진띠** 쥐, 토끼, 개띠와 합의를 찾아야겠다. 맹목적으로 냉대함으로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 돌파구를 찾을 때다. 시기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다. 재혼의 기회를 찾는 자는 소, 범, 양띠를 한번 더 생각할 것. 브라운 색으로 단장해 볼 것.



▶**말띠** 뜻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과신을 삼갈 것. 자기주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재목이 됨을 알라. 3, 8, 12월생 서둘러 마라. 애정이든 금전이든 쉽게 잡은 것 쉽게 내가는 격.



▶**양띠** 이렇까 저렇까 망설임 속에서 내일을 보내니 모래성 쌓다 무너뜨리는 격. 기, 마, 오, 자 성씨는 떠난 사람 미워 말고 마음을 비우고 기다린다면 몰라주던 상대가 마음 돌릴 수 있다. 4, 5, 6월생은 푸른색은 길하나 검정색 피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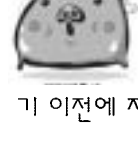
▶**원숭이띠** 나, 오, 흥 성씨 서두르지 않는 가운데서 새로운 일 시작하면 추진하는 대로 금전이 연결된다. 안정이 찾아 드는 길일. 1, 4, 9월생 애정으로 있어 공백 기간이 길어진다면 회개하기 힘드니 한발 양보해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함이 좋겠다.



▶**닭띠** 내일의 수확을 위해 동분서주하니 혼자 뛰는 마음 급 하지만 할 뿐 소득이 없구나. 3, 7, 12월생 내조의 힘을 빌린다면 무겁던 어깨 가벼워질 수. 좀더 진실됨을 보여 오늘만이라도 음주는 삼갈 것. 부모님 마음 상하지 않도록.



▶**개띠** 자신을 비판하거나 과신하지 말 것. 1, 2, 6, 9월생 때가 아닌 만큼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기 힘든 때이나 점차적으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운임을 알라. 기, 오, 자 성씨 한 길로 승부를 걸 때 대성할 수 있겠다. 마음을 넓게 펼쳐 나갈 것.



▶**돼지띠** 나, 바, 사, 자 성씨 단 한번으로 기회를 잡으려 말라. 피하던 일이 남에게 넘어갔다고 한탄해도 소용없는 일. 꾸준한 노력으로 새 길을 닦을 것. 4, 9, 10월생 잡으려고만 하기 이전에 자신의 처세를 분명히 함이 좋겠다. 밤길 운전은 피함이 좋을 듯.